

1. 교회 처음 방문하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교회 등록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교회 홈페이지를 통하시거나
여기 QR코드를 찍으셔서 바로 등록 절차를 밟으실 수 있습니다.
필수 성경공부인 '길찾수(길을 찾아 만난 예수)' 성경공부를 이수하셔야 합니다.



2. 아침묵상

야고보서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6시 정각에 공개됩니다.

지난 주 (8/9/26) 헌금 통계

선교구제 헌금란이 없는 이유는 매주 전체 헌금에서 5%를 선교구제비로 구별하기 때문입니다.
투명한 재정운영을 위해 재정 보고서를 매월 첫째 주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습니다.

총 액

\$880.00

tcc@togetherchus.org 201-580-4123 276 Haworth Ave, Haworth, NJ 07641

2026년 8월 23일 (670호)

말씀묵상 1:6
선한 일을 여러분 가운데서 시작하신 분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 일을 완성하시리라 고, 나는 확신합니다.



*예배로 부름	Call to worship	다함께
*찬양과 경배	Songs of Praise	다함께
기도	Prayer	유형선
*주님의 기도	Lord's Prayer	다함께
*성경봉독	Scripture Rec 갈라디아서 5:22-26	다함께
교회소식	Announcement	유형선
말씀선포	Sermon 열매2	유형선
*찬양	Praise	다함께
*봉헌&축도	Offering&Benediction	유형선

주일대표기도

8/30/26	9/6/26
서경열	최은숙

예배시간안내

주일예배	오후 1시 (본당)
수요성경공부	저녁 7시 30분 (온라인) (방학중)
아침묵상	(화,수,목,금) 매일 오전 6시 (Youtube)

공동기도제목

1. 말씀 안에서 - 부활 신앙으로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며 합당한 삶을 살게 하소서
2. 나라와 민족 - 민족을 치유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민족이 되게 하소서
3. 교회와 선교 - 교회가 십자가 앞에 무릎꿇고 자신의 기득권을 포기하고 낮은 자리에서 섬기게 하소서

열매

성경에는 ‘열매’라는 단어가 많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 열매를 눈에 보이는 성과나 업적으로 이해하고 해석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열매는 그러한 눈에 보이는 성과나 업적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선택하여 부른 이유는 너희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고, 동시에 열매를 맺지 못하면 찍어 불에 던져 버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마치 우리에게 어떤 열매를 맺기 위한 노력을 요구하는 말씀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전반적으로 이 열매를 반드시 맺어야 하는 것이지만 결코 우리 인간이 맺을 수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에 불과하니 가지가 스스로 아무리 노력해도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가지의 역할은 그저 나무에 붙어 있는 것이 전부입니다. 그리고 가지가 아무리 나무에 붙어 있고 싶다고 해서 붙어 있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나무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지 못하면 결코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을 수 없으며, 동시에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열매를 이해하려면 대표적인 비유중 하나인 씨뿌리는자의 비유를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비유도 우리는 흔히 우리가 노력하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을 것이다. 그러니 지금보다 더 충성해라 더 열심을 내라 더 부지런해라라는 교훈으로 끌고 갑니다. 그러나 전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길가밭, 돌짜밭, 가시덤불밭이 스스로 옥토가 되어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밭은 좋은 열매를 얻기 위한 어떤 노력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저 농부가 그 땅을 기경해서 좋은 씨를 뿌려 주어야만 가능합니다. 농부는 당연히 하나님 아버지이시고, 씨는 말씀이자 곧 예수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묵은 땅을 기경하시고 갈아엎으신 다음에 거기에 말씀의 씨앗을 뿌려 가꾸셔야만 주님이 원하시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나쁜 나무이기에 우리에게서 나오는 열매는 온갖 가시덤불과 엉성퀴밭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갈라디아서의 유명한 본문 말씀도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식으로 해석해서는 안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인격과 성품을 닮은 나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안에 여전히 가라지가 함께 자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날마다 그 가라지를 뽑아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마지막 때까지 그 가라지를 알곡과 함께 자라게 내 버려 두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가라지를 뽑다가 알곡도 함께 뽑을까 염려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육체의 가시와 같은 불편한 가라지가 함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결국은 내가 열매를 맺는데 도움이 되고 그 고통과 아픔의 순간들을 견디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로 자라나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것임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되는 것입니다.